



호남고속철도 신형 KTX가 시승행사를 마치고 광주 송정역에 진입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시속 302km...충북 오송이 54분 “이웃같은 느낌”

### 호남선 KTX 시승해보니

‘호남민의 속원’인 호남고속철도(1단계)가 드디어 다음달 2일 개통한다. 광주 송정역에서 KTX를 타면 서울 용산역까지 최소 1시간 33분만에 도착, 수도권과 호남권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광주에서 서울까지 가는 데서대전역을 거치는 기존 호남선을 이용하는 탓에 제 속도를 못내 ‘무늬만 KTX’였다.

개통에 앞서 10일 호남고속철도(1단계)를 미리 타보니 ‘호남-수도권 반나절 생활권’이라는 말이 현실로 다가왔다.

광주 송정역에서 베이지색 바탕의 레드와인색 옷을 입은 신형 KTX열차에 올랐다. 내부 화면에는 충북 오송이란 목적지가 떴다.

신설된 고속철도를 따라 출발한 지 5분여가 지나자 250km를 오르내리더니 10분여 만에 300km를 넘나드는 숫자가 찍혔다. 이날 최고 속도는 302km를 기록했다.

이전까지는 고속철도 전용선이 아닌 일반선로를 이용한 탓에 시속 150km의 속도를 내는 데 그쳤던 구간으로,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지면서 소요시간도 기존 2시간에서 66분이나 줄어든 54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이날도 오후 2시 12분에 송정역을 출발한 열차는 충북 오송역에 정확히 3시 6분에 도착했다.

오송에서 서울 용산역까지 39분이 추가

광주~서울 1시간 33분  
반나절 생활권 현실로  
좌석 간 실내공간 넓어져  
승차감 전반적으로 안정적  
터널 지날 땐 빙음에 깜짝

소요되는 만큼 광주 송정~서울 용산역 구간도 기존 2시간39분에서 66분 줄어든 1시간33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됐다.

여행의 묘미 중 하나인 열차에서 즐기는 ‘꼭잡’조차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시공간이 단축된 것이다.

다만 광주 송정~서울 용산간 1시간 33분대 주파는 무정차 기준으로 우선 왕복기준 1대만 운행될 예정이며, 나머지는 역정차 시간 등을 감안하면 평균 1시간 47분에서 2시간 정도 걸린다는 게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승차감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지만, 270km를 넘어선 후 일시적으로 열차의 좌우 떨림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터널을 지날 때는 옆 사람과 대화가 힘들 정도로 소음이, 반대쪽 선로에서 열차가 교차로 진행할 때는 순간 깜짝 놀랄 정도의 소음과 진동이 발생했다. 300km대를 오가다가 200km 이하로 속도가 줄어든 때는 귀속이 멎해지는 현상을 경험했다. 일부 시승객들은 울렁거림을 호소하기도 했다.



오는 4월 2일 호남고속철도 정식 개통을 앞두고 광주시가 10일 광주 송정역부터 오송역까지 신설된 고속철도에 대한 시승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신형 KTX에 탑승한 녹색어머니회 광주연합회 회원들이 출발한 지 10여분만에 정읍에 도착하자 놀라워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날 시승한 열차는 ‘KTX산천’ 모델을 개량한 신형차량으로, 기존보다 좌석간 실내공간이 넉넉해졌다. 좌석 사이 무릎 공간이 KTX산천 일반실(14.3cm)보다 5.7cm 정도 늘어난 덕분에 다리의 움직임도 편했다.

특히 모든 좌석 아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각종 전자기기를 충전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전원 콘센트가 있고, 좌석간 회전도 가능했다.

기존 KTX 열차에는 맨 뒷좌석 또는 앞

좌석에만 전원 콘센트가 배치돼 있어 전자 기기 사용이 많은 젊은층 고객의 불만 중 하나였다.

다만 전원이 불안정한 탓에 전원이 자주 꺼지는 현상은 ‘욕의 티’였다. 좌석수는 KTX산천보다 47석 늘어난 410석으로 덩치도 커졌다.

문제는 가격과 열차 운행 횟수다. 서울~광주간 요금은 현재 3만8600원에서 4만7000원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돼

고객 요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운행 횟수도 주말 기준 편도 24회로 1시간당 1대꼴에 불과하다. 이는 144편에 이르는 경부선과 비교하면 지역 차별이 거론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운행 횟수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8조3529억원(차량구입비 7360억원)을 들여 광주 송정역~충북 오송역 182.3km구간에 고속철도가 신설됐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 남북단일팀 무산되나...광주U대회 흥행 ‘비상’

통일부 “적절치 않다” 선긋기에 광주시·조직위 ‘곤혹’

판문점 성화봉송·응원단 파견도 우려감...“입장 변화 기대”

정부가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광주U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대회 흥행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

다. 특히 광주 U대회는 국제 정치 등과는 무관한 전 세계 대학생들의 대형 이벤트라는 점에서 정부가 최근 남북 관계 등을 이유로 단일팀 구성 불가 의사를 밝힌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단일팀 구성 관련해서는 남북관계 및 국민 정서와의 조화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단일팀 구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향후 북한이 단일팀 구성을 요청해 올 경우에 대한 질문에도 “상황을 가정해서 말하진 않겠지만 앞의 사유로 인해 단일팀 구성이 적절치 않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와 조직위, 지역 정치권은 북한팀 참가 신청으로 단일팀 구성, 판문점 성화봉송, 북한 미녀 응원단 참가 등 굵직한 흥행 이벤트를 기대했지만, 정부의 부정적 입장에 따라 무산될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일단 각종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하는 광주시와 광주 U대회 조직위는 거센 항의 보다는 안타깝다는 입장만을 표현하고

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남북 단일팀 구성은 대회 유치 때부터 바랐던 것으로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닌 만큼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 등에 남북단일팀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보낸 광주와 전남·북 의장단 협의회, 광주시의회 등 지역 정치권도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한 관계자는 “광주U대회 성공을 위해서는 남북단일팀 구성이 필요해 호남권 의회가 한목소리로 건의문까지 보냈는데 도착도 하기 전에 정부의 부정적 입장이 나와 아쉽다”면서 “정부의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U대회는 오는 7월 3일부터 14일까지 21개 종목에 전세계 170개국 2만여명의 대학생이 참가하는 스포츠 제전으로 친환경·평화·최첨단IT·문화대회는 비전 아래 개최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오늘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오전 7시~오후 5시

시·군·구 투표소 어디나 가능

오후 7시 계 당선자 윤곽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장을 뽑는 선거가 11일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러진다. <관련기사 6면> 광주시와 전남도 선관위는 1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합장 선거 유권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시·군·구의 어느 투표소에서든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지역의 조합장선거 투표소는 총 270곳이며, 선거를 실시하는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하고 동(洞)지역의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가 해당 조합과 협의해 일부 동에만 설치하는 곳도 있다.

광주에서는 17명, 전남에서는 179명 등 총 196명의 조합장을 뽑는다. 광주 1곳, 전남 34곳은 단독 후보 출마로 무투표 당선 이 확정된 상태다.

투표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관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다만, 법인 선거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피위임자) 신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개표는 투표 종료 직후인 오후 5시30분 일반개표소부터 시작된다. 선관위는 이른 오후 7시, 늦어도 밤 10시 쯤이면 조합별 당선자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나르시스에서 피어나는 무한한 생명력  
헤라 시그니아 크림

고귀하고 강인한 아름다움의 상징 나르시스-그 절정의 생명력을 피부에 선사하는 안티에이징의 정수, 헤라 시그니아 크림 3백만 나르시스 스템셀이 피부에서 피어나는 순간 거울 속 생명력 넘치는 아름다움이 빠져들게 됩니다

\*유명역사점이나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객상담실: 080-023-5454(수신료유료부담) www.hera.co.kr